

임재범 올킬!

25일 방송 '시티헌터' OST '사랑' 각종 음악사이트 1위
"방영 전 '올킬' 컷 사례"...내달 콘서트 예매도 단연 톱



가수 임재범의 인기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를 통해 신드롬에 가까운 관심을 끌고 있는 임재범은 20일 발표한 신곡으로 음원차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임재범은 25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드라마 스페셜 '시티헌터'의 주제가 '사랑(사진)'을 20일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발표했다. 이 노래는 발표와 동시에 멜론, 도시락, 엠넷닷컴, 빅스뮤직, 소리바다, 싸이월드 등 주요 음악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OST앨범 수록곡이 방송에 앞서 먼저 공개된 것도 이례적이고,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 음악 사이트 '올킬'을 기록하는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사랑'은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처음 선보인 신곡으로, 투에니얼과 성시경, 백지영 등 음악 사이트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수들과 경쟁을 벌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사랑'의 음원 유통사 소니뮤직 코리아 측은 "'사랑'은 이전 최고의 OST 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그 여자'보다 음원 이용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사랑'은 사상 최초로 드라마 방영 전 '올킬'을 이룬 OST 수록곡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랑'은 블루스가 가미된 발라드 장르의 노래로, 임재범 특유의 거칠고 슬픈 감성이 두드러지는 곡이다. 소니뮤직 코리아 측에 따르면 임재범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된 녹음 과정 내내 "노래가, 노랫말이 너무 아파다...", 너무 슬프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랑'에 밴 진한 감성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임재범에 대한 관심은 콘서트 예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월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1 임재범 콘서트-다시 깨어난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임재범 콘서트는 인터넷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서 20일 현재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인터파크에서 판매된 모든 콘서트 티켓의 46.4%가 임재범의 것이었다. 2위 신혜성 콘서트의 6.5%와도 큰 차이였다.

한편 최근 맹장수술을 받은 임재범은 '나는 가수다' 출연 여부와 관련해 23일 녹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제작진은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판수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목소리로 승부...이소라의 마이웨이



단출한 악기·실험적 편곡 '차별화' 호평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의 산파역인 가수 이소라(사진)가 다른 출연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실험적인 무대로 '마이 웨이'를 견고하고 있다.

이소라는 '나는 가수다'에서 기타와 베이스, 드럼, 건반 등 풀 밴드를 기용하고 특별 연주자나 코러스를 무대에 세워 화려한 편곡을 보여주는 다른 가수들과 달리, 대부분 무대에서 단출한 악기 연주와 실험적인 편곡으로 차별화한 무대를 보이고 있다. 1일 방송분에서 불렀던 자신의 히트곡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는 피아노 한 대만 두고 노래를 불렀고, 8일에는 보아의 '넌버 원'은 기타와 베이스, 퍼커션 등 세 종류의 악기가 세션 전부였다. 22일엔 피아노와 기타, 베이스 등 세 가지 악기의 연주 속에 송창식의 '사랑이야'를 부를 예정이다. 특히 이소라는 풍성한 화음을 위해 대부분의 가수가 기용하는 코러스를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았다. 이소라는 이보다 목소리 자체가 빛어내는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나는 가수다'를 기획한 김영희 PD는 "이소라는 프로그램의 예술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며 그녀의 존재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김원경 기자

'뺑소니 논란' 한예슬 무혐의 처분



"피해자 피해 경미...혐의 인정 어려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CCTV 분석 결과 충돌 가능성 적다."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빚은 연기자 한예슬(사진)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예슬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였던 CCTV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피해자 도 모 씨의 엉덩이와 한예슬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달라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국과수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예슬은 사고 이후 18일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ricky337

김지훈 전 부인 "날 화장시켜..." 자살 암시글 올려

가수 김지훈의 전 부인 이 모씨가 트위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이 씨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0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다들 고맙네요. 이제 갈래요.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내가 참 나쁜 아이였나봐요"라며 "아들도 너무 보고 싶고 버틸 힘이 없고 세상은 온통 남 얘기 판을 치고 전 남편 김지훈. 예쁘게 밝게 잘 키워주고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난 화장시켜 공기 좋은 데로 보내줘"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씨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삭제했다.

김민정 기자



'원조 섹시가수' 김완선이 관능미 넘치는 화보를 공개했다. 패션잡지 마리끌레르 6월호 화보를 통해 김완선이 나이를 잊은 완벽한 바디라인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마리끌레르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6@donga.com 트위터@hk7046

"세시봉!"...칸, 또 한국에 반했다

(매우 좋다)

개봉 후 이례적 초평 '황해' 기립 박수
'아리랑' '북촌방향'도 수상 여부 관심



홍상수 감독 영화 '북촌방향'에서 호흡을 맞춘 유준상(왼쪽)과 송신미.

한국영화와 배우, 감독들이 올해도 프랑스 칸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23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폐막을 앞둔 제64회 칸 국제영화제에 참여한 한국영화가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의 새로운 흐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도 있었고 상영 직후 논란과 화제를 일으킨 관심작도 나왔다. 공식부문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나홍진 감독의 '황해'는 19일 루미에르 극장에서 상영된 뒤 관객들로부터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 2008년 장편 데뷔작 '추격자'로 처음 칸을 찾았던 나홍진 감독은 '황해'에서 다시 만난 김윤석·하정우와 두 번째 레드카펫을 밟고 환호에 답했다. '황해'는 주로 개봉 전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칸 국제영화제 관례를 깨고 개봉한 지 5개월이 지난 뒤 초청받아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나홍진 감독은 국내 개봉 당시 내용을 수정해 다른 버전을 영화제에서 선보였다.

같은 부문에 초청된 또 다른 영화 '북촌방향'과 '아리랑'은 수상 여부에도 관심을 끄는 상황. 지난해 '하하하'로 이 부문 그랑프리상을 받았던 홍상수 감독은 20일 신작 '북촌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문제의 화제적으로 떠오른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은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한국영화 가운데 가장 먼저 상영되면서 한국에서는 논란을, 해외 언론으로부터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스크린 인터내셔널은 "최고의 작가 영화가 나왔다"고 평했고, 할리우드 리포트는 "영화에 대한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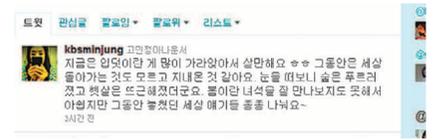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스타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들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선 건 올해 칸 국제영화제가 한국영화 팬들에게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다.

장동건은 2차 세계대전을 다룬 300억 대작 '마이 웨이'로 칸을 찾아 대규모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촬영이 진행 중인 한국영화가 완성 전, 칸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기는 이례적이다.

이혜리 기자 goli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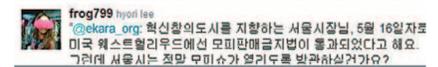


스타 온라인



고민정 아나 "결혼 6년만에 임신했어요"

고민정 KBS 아나운서가 결혼 6년 만에 임신해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05년 시인 조기영 씨와 결혼한 고 아나운서는 2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kbsminjung)를 통해 임신 소식을 알리며 "한동안 잘 먹지도 못했고 먹어도 속이 안 좋았다. 글썽을 보면 어지러워 트위터든 블로그든 할 수가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2세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입덧이 심했지만 지금은 좀 가라앉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자 팬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는 등의 축하를 전했다.



이효리 "서울시장님, 모피쇼 막아주세요"

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가수 이효리가 '모피 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효리는 2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frog799)에 "혁신 창 의 도시를 자랑하는 서울시장님, 5월16일자로 미국 웨스트햄리우드에선 모피 판매 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말 모피쇼가 열리도록 방관하실 건가요?"라는 글을 리트윗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유기견 보호 활동에 힘쓰는 등 동물 애호가로 활동한 이효리의 입장에 대해 팬들은 "역시 이효리다" "불쌍한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타 가라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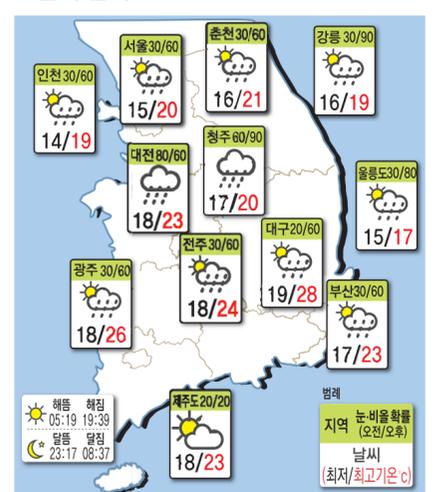
가수 손담비 "김연아는 온 몸이 잔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20일 열린 SBS 예능프로그램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멘토 겸 진행자인 김연아를 처음 본 소감을 밝혔다.

박민영 "유아인은 트위터 선생님"

19일 밤 방송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동료 연기자 유아인에게 멘트 등 트위터 사용법을 배웠으며.

오늘의 날씨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2일(일)	13/22	14/23	14/22	16/23	13/16	17/19
23일(월)	14/24	12/24	13/23	15/24	12/24	16/21
24일(화)	14/26	12/25	12/25	15/26	13/25	15/23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편집부 02 2020 1039
인쇄인 최병호 소모소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이성훈 소모소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숙영 연세대학교 02 2020 1061
사자부 02 2020 1068

(우)110-715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계천로 1
2009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9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